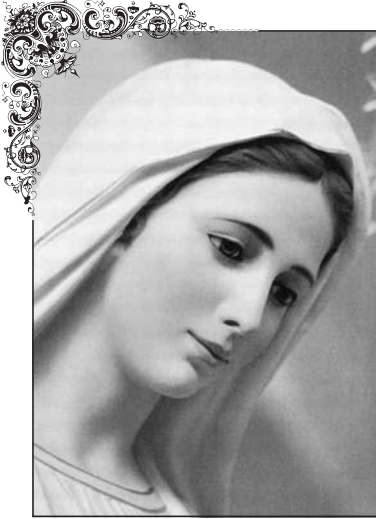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 평화의 모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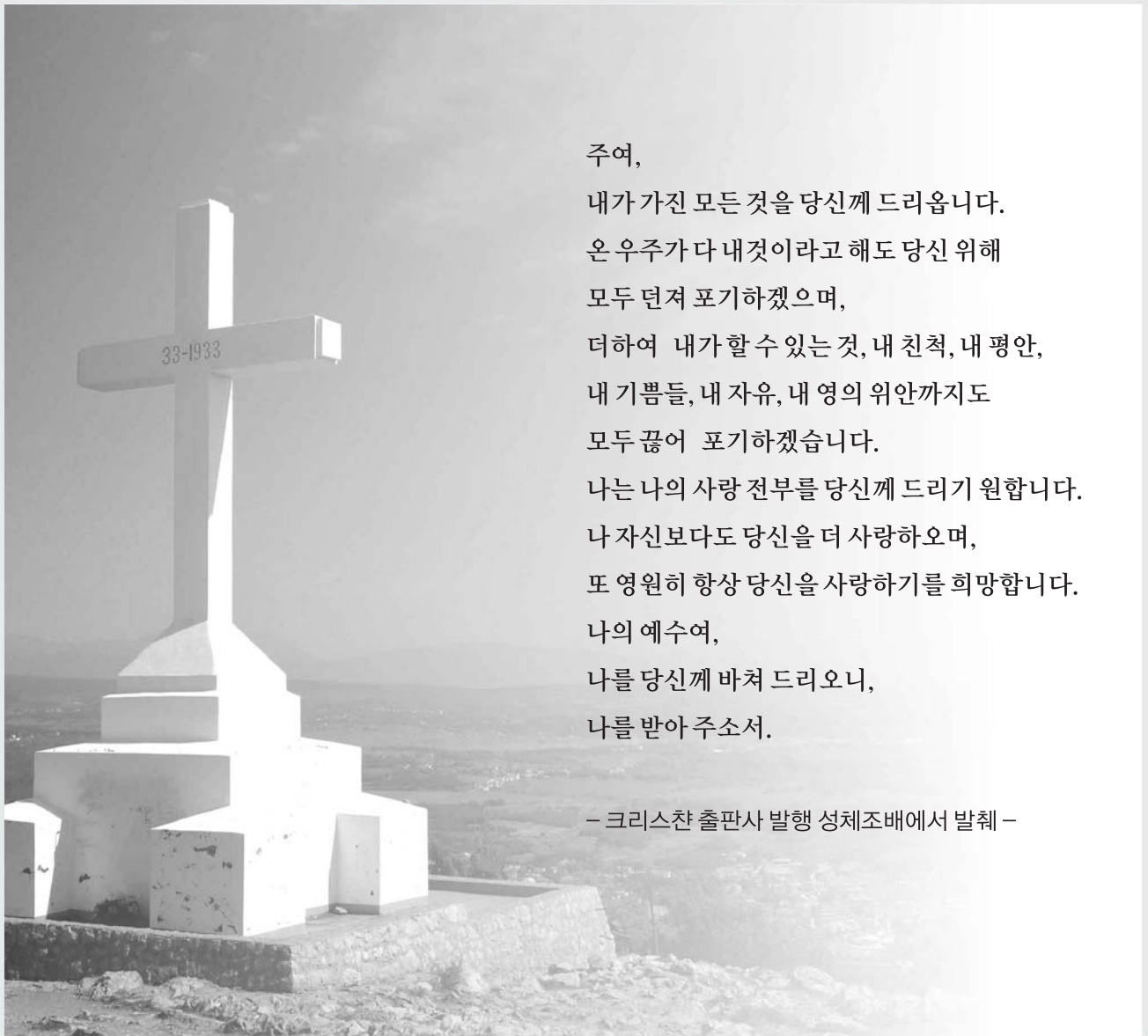
*Queen of Peace Missionaries*

2010, February / 제54호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기쁜 날, 나는 평화의 왕이신 내 아드님께서 너희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시도록 너희 모두를 그분 앞으로 데리고 간다.  
어린 자녀들아,  
그 평화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어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12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주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웁니다.  
온 우주가 다 내 것이라고 해도 당신 위해  
모두 던져 포기하겠으며,  
더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친척, 내 평안,  
내 기쁨들, 내 자유, 내 영의 위안까지도  
모두 끊어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 전부를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오며,  
또 영원히 항상 당신을 사랑하기를 희망합니다.  
나의 예수여,  
나를 당신께 바쳐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 크리스찬 출판사 발행 성체조배에서 발췌 -

##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예수님 성모님, 장베네딕트에게 필요한 치유의 은총을 주소서!
- 성모님, 모든 낙태아의 영혼에게 많은 사랑을 주세요.
- 저희 노부부의 가정에 평화로움을 허락하여 주소서.
- 신경남 신부님과 선교회의 봉사자 분들을 위해기도합니다.
- 예수님 성모님, 치매가 시작되는 안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 주님, 저의 삶을 가장 작은 일부터 늘 기도하게 하소서.
- ○○○의 마음의 상처와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성모님, 큰오빠의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어머니, 마리아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탁하나이다.
- 성모님, 아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 첫 손주의 영육간의 건강과 그 가정을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성모님, 아버지 영혼이 주님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주님이 허락하신 3남매 가족들도 신앙안에서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 제피리노의 조상님들과 연옥 영혼 중 제일 불쌍한 영혼을 위하여...
-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12월 21일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는 시어머님을 위하여 기도청합니다.
- 남편의 영혼 안식과 죄없이 희생된 낙태아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2010년도에는 아들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세 사람에게 건강과 사랑해주심 감사드리며 좋은 직업주심을 믿습니다.
-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평화와 너그러움을 갖게 하소서.
- 어머니, 아버지! ○○○가 2년만에 성체를 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황하는 큰 아들과 조상들의 영혼을 봉헌하오니 보살펴주시고 평화를 주소서.
- 이라크에서 군 복무중인 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청합니다.
- 기도회원의 가정 평화와 은총이 풍성한 기도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 큰아들에게 마음의 편안함을 막내아들의 사법고시 합격을 기원합니다.
- ○○○가 사춘기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성모 성심께 봉헌미사를 드립니다.
- 죄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오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 남편이 회사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성모님, ○○○공동체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재정적 압박감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성모님, 아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굳은 믿음생활과 법정의 일이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예수님, 성모님, 북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수 신부님과 북한동포들에게 빛과 희망을 주소서.
- 손녀딸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 가정의 아들이 냉담하고 있으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 4년 전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저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특히, 남편의 우울증이 치유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친정어머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아들의 간을 이식받은 남편과 아들 모두가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 
- 3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하겠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목자의 소리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3)



# 죽음을 물리치는 영생의 약 성체성사.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17.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영성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에프렘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당신의 살아 있는 몸이라 부르셨고, 그 빵을 당신 자신과 당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 믿음으로 그 빵을 먹는 사람은 불과 성령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빵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 빵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진실로 내 몸이며, 내 몸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찬례의 성령 청원 기도로 다른 모든 예물의 원천인 이 거룩한 예물을 간청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거룩한 전례」 (Divine Liturgy)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 간청하고 애원하고 청하오니, 저희와 이 예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보내 주십시오. ...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은 영혼이 깨끗해지고, 죄를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미사 전례서」 (Missale Romanum)에서 사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

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몸과 피를 주시므로써 당신 성령을 우리 안에 더욱 가득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이미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인호'를 받았습니다.

18. 빵의 축성에 이어서 하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라는 신자들의 응답 속에는 성찬 예식의 특징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1고린 11,26 참조)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찬례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을(요한 15,11 참조) 미리 맛보려는 목표를 지향하는 노력입니다. 성찬례는 어느 면에서는 천국의 선취이며, "후세 영광의 보증"입니다. 성찬례의 모든 것은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나중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간이 후세에 누리게 될



충만함의 첫 열매입니다. 성찬례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 중 말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을 얻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요한 6,54) 후세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보증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어진 사람의 아들의 살이, 부활한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성찬례로써 우리는 말하자면 부활의 '신비'를 맛봅니다. 따라서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성인은 성찬의 빵을 "죽음을 물리치는 영생의 약"이라고 적절히 정의한 바 있습니다.

**19.** 성찬례로 고조되는 종말론적 긴장은 우리가 천상 교회와 이루는 친교를 표현하고 강화합니다. 동방 교회의 감사기도와 라틴 교회의 감사기도가, 우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동정 성모 마리아와 천사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모든 성인에게 공경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찬례의 이러한 측면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양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면서 우리는 천상 '전례'에 결합되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양이십니다."(묵시 7,10) 하고 외치는 수많은 군중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례는 사실 지상에 나타난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입니다. ...

**20.** 성찬례에 내재한 종말론적 긴장이 지닌 또 하나의 중요성은 성찬례가 역사를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에 힘을 실어 주고, 우리 앞에 놓인 일과에 전념하는 우리 안에 살아 있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에 대한 기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현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킵니다. 저는 새 천년기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시민으로서 완수하여야 할 임무에 어느 때보다 충실하여야 할 의무를 느끼도록 이러한 사실을 강력히 재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으로 더욱 인간다운 세상, 하느님의 계획에 온전히 일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이바지할 임무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시대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정의와 연대라는 굳건한 전제 위에 민족간의 관계를 세우며,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거의 잃어버린 듯한, '세계화된' 세상의 온갖 모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할 곳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또한 그러한 까닭에 주님께서서는 성찬례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려고 하셨으며, 음식과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심으로써 인류가 당신 사랑으로 새로워질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최후 만찬 이야기에서 공관 복음서는 성체성사 제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 복음서는 성체성사 제정의 심오한 뜻을 밝히는 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친교와 봉사의 스승 이심을 보여 주는 '세족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요한 13,1-20 참조) 또한 바오로 사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분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1고린 11,17-22,27-34 참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1고린 11,26)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은 성찬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그 삶이 어떤 면에서 완전히 '성찬례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식과 그리스도인 삶 전체에 내재된 종말론적

긴장을 훌륭하게 보여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된 삶의 결과와 복음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입니다. "오소서, 주 예수님!"(묵시 22,20)

## 제2장 교회를 세우는 성체성사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찬례 거행이 교회의 성장 과정의 중심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공의회는 "신비 안에서 이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곧 교회는 하느님의 힘으로 세상에서 볼 수 있게 자라고 있다." 라고 언급한 다음,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듯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양으로 희생되신'(고린 5,7)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지며, 동시에 성찬의 빵을 나누는 성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고린 10,7 참조) 신자들의 일치이 표현되고 실현된다." 성체성사는 교회의 기원 자체에 영향을 미친 원인입니다. 복음사자들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이 열두 사도들이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마태 26,20; 마르 14,17; 루가 22,14 참조) 사도들이 "새 이스라엘의 싹이 되고 동시에 거룩한 교회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사도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 주시므로 얼마 뒤 해골산에서 완성될 희생 제사에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을 동참시키셨습니다. 번제를 올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맺어진 시나이 산의 계약과 비슷하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새 계약의 백성인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다락방에서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마태 26,26-27)고 하신 예수님의 초대받음으로써 처음으로 예수님과 성사적으로 일치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하느님의 아드님과 성사적 일치를 이룸으로써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린 11,24-25; 루가 22,19 참조)

**22.**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이루는 결합은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특히 성사적 친교에 완전히 참여함

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강화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받아 모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받아 들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나의 벗이다."(요한 15,14)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와 친교를 맺으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힘으로 삽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요한 6,57) 성찬례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가 서로 안에 '머물러 있음'을 탁월하게 드러냅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요한 15,4) 새 계약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룸으로써, 자신 안에 간혀 있기보다는 인류를 위한 '성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표징이며 도구가 되고,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세상의 빛과 소금(마태 5,13-16 참조)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교회는 십자가의 영원한 희생 제사에서, 그리고 성찬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결합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찬례는 모든 복음화의 원천이며 정점입니다. 성찬례는 인류가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와 성령과 친교를 이루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3.** 성찬례의 친교는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일치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바오로 성인은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찬례 참여가 지니는 이러한 일치의 힘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빵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고린 10,16-17) 이 말씀에 대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설명은 심오하고 예리합니다. "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빵을 받아 먹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여러 개의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빵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존재하는 수많은 밀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완전한 하나이고, 그 각각의 밀알이 완벽한 전체를 이루고 있어 서로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지는 은총인 그리스도와 이루는

결함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몸인 교회의 일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찬례는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일치를 강화시켜 줍니다.(1고린 12,13,27 참조) 교회의 기원이며 교회를 굳건히 하고 지속적으로 살아 있게 하는 성자와 성령의 나뉠 수 없는 일치 활동은 성찬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야고보 전례」(Liturgy of Saint James)의 저자에게는 아주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동방 교회의 감사기도에 나오는 성령 청원 기도에서는 아버지 하느님께, 신자들과 예물 위에 성령을 보내 주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것을 나누어 먹는 모든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거룩하게 하시어 그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성령께서 성찬례를 통하여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굳건해집니다.

**24.** 영성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을 받아 모심으로써 인간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힌 형제적 일치에 대한 염원이 충만히 실현되는 동시에, 같은 성찬의 식탁에 동참함으로써 느끼는 형제애가 더욱 고양되어, 단순히 음식을 나눌 때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친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친교를 이룸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그리스도 안의 성사,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가 됩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의 결과로서 인류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불일치의 씨앗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닌 일치를 이루는 힘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성찬례는 바로 교회를 자라나게 함으로써 인간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25.** 미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체 공경은 교회 생활에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입니다. 이러한 공경은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남겨 둔 거룩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계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 남아 있는 동안 그 현존은 계속됩니다. — 희생 제사의 거행에서 비롯되며, 성사적이며 영적인 친교를 지향합니다. 목자들은 성체 조배와 특히 성체 현시, 그리고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흠숭 기도를 각자의 개인적 증거를 통해서도 장려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의 안에 머무르겠다."**(요한 15,4)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처럼 예수님의 품에 바싹 기대어(요한 13,25 참조) 그분 마음속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기도의 특성"으로 두드러지면,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나누는 영적 대화와 그분 앞에서 드리는 침묵 조배, 그리고 그분께 대한 진실한 사랑 안에서 시간을 보낼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모르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힘과 위안과 지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교도권이 수없이 칭송하고 권장한 이러한 신심 실천은 수많은 성인들의 모범으로 뒷받침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난 분은 알폰소 데 리구오리 성인으로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심 가운데,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사에 이은 가장 뛰어난 신심이며,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주는 신심입니다." 성찬례는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중한 보화입니다. 우리는 성찬례를 거행함으로써만 아니라 미사 밖에서도 성체 앞에서 기도 드림으로써 은총의 원천 자체에 가 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서 「새 천년기」와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에서 제시한 그러한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의 친교의 열매를 지속시키고 증대시키는 성체 공경의 이러한 측면을 또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M**

가톨릭교회는 교황님들이 남기신 주옥같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유산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연재합니다. -편집부-

#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결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크리스토프 손본 추기경  
로마 교황청 신앙 교리 성성위원  
비엔나 대교구장 / 카톨릭 교회 교리 편집 위원장



그동안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교구장 크리스토프 손본 추기경이 2009년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처음 메주고리예를 방문했다. 손본 추기경은 순례 기간 중, 성시간 및 성 야고보 본당 저녁 예절에 참석하고, 순례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여섯 명의 발현목격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 파블로비치-루네티를 만나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청 십자가와 발현산을 방문하여 기도를 바쳤다. 또한 순례자들에게 특별 강론을 하고, 2009년 12월 31일 밤에는 메주고리에 성모성지를 돌보고 있는 프란치스코 회원들과 그곳을 찾은 다른 많은 사제들, 그리고 수천 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2010년 새해 신년 전야 미사를 봉헌했다. 다음은 손본 추기경의 메주고리에 순례 일정의 구체적인 발자취와 강론들이다.

도착 첫 날인 28일, 메주고리에 성 야고보 본당의 주임 신부인 페타르 블라시 신부의 영접을 받은 손본 추기경은 메주고리에 전임 주임신부였던 토미슬라브 페르반 신부를 비롯한 다른 프란치스코 회원들을 만났다. 그날 저녁, 추기경은 성시간에 참여하여 침묵 가운데 기도를 바쳤다.

추기경은 성당을 떠나면서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메주고리예를 고안해 낼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요? 아닙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은 결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토미슬라브 신부는 "우리는 추기경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편찬할 때, 중요한 위치에 계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손본 추기경은 동방 그리스도교 신학자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분이며 교황청 교리 신앙성 위원이기도 하다.

29일, 손본 추기경은 다른 순례자들과 함께 청 십자가와 발현산을 찾아 기도를 바쳤는데, 여섯 명의 발현목격증인 가운데 한 사람인 마리아 파블로비치-루네티가 추기경과 대동했다.

30일 오후 3시, 추기경은 성 야고보 본당에서 특별 강론을 했다. 강론의 주제는 '하느님의 자비'였고, 메주고리예를 칭송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추기경은 강론을 시작하면서 발현목격증인들과 메주고리에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사법인 "찬미 예수님 성모님!"을 크로아티아로 여러번 반복하며 청중들에게 함께 따라하도록 요청했으며, 다음과 같이 메주고리예가 하느님 자비의 초자연적 힘이 드러나는 곳임을 강조했다. "여러분이 메주고리예와 같은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장소를 알게될 때,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자비의 초자연적인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자비 행위가 이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강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추기경은 청중들에게 일어나서 메주고리에 노래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스파 마이카 모야 (성모님 우리 어머니)'를 함께 부르자고 제안했다. 청중들과 함께 노래하는 동안 추기경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추기경은 "저는 교회 내의 많은 체험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한 그 어떤 것을 가능하게 보여 준다고 믿습니다." 라는 말로 강론을 끝맺었다.

31일 밤, 손본 추기경은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순례자들, 사제들, 그리고 메주고리에 성 야고보 본당에서 사목하며 성지를 돌보고 있는 프란치스코회 사제들과 함께 2010년 새해 신년을 맞이하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대축일을 경축하는 미사를 봉헌했다. 다음은 추기경이 미사 중에 행한 강론의 일부이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마리아, 요셉,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 그리고 목동들과 함께 새해의 시작을 경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모두는 특별히 주님의 어머니께 가까이 가기 위해 메주고리를 찾아왔습니다 ...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는 좋은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사제와 부제들, 우리 모두 기도를 위한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을 맑게해줍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리아께 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생명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 생명이 담긴 기도로써 우리는 힘차게 하느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

저는 메주고리에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보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고해성사는 죄의 노예살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줍니다. 죄보다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어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분은 우리에게 화해의 성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느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대단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동들은 돌아갔고, 하느님을 찬미했으며, 자신들이 듣고 보았던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느님을 먼저 찬양해야 합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차 혹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듣고 보았던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가 믿었던 하느님을 믿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1월 2일 손본 추기경은 메주고리에 순례를 마치고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돌아갔다. 교황청의 지침대로 교구 차원의 순례단을 조직하지 않고, 추기경 개인 자격으로 '사적인 방문'을 했지만, 손본 추기경은 발현목적증인과의 발현산 등정, 체나폴로와 평화의 오아시스 공동체 방문, 공식적인 특별강론과 새해 전야 미사 거행 등 눈에 띄는 행보를 함으로써 메주고리에와 신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M**

# 다시 한 번 교회와 세상의 주목을 끄는 메주고리에

다음은 2010년 1월 4일 크리스토프 손본 추기경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일간지 Vercernji List와 가진 대담 내용이다:

대답자 : 메주고리에가 다시 한 번 교회와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손본 추기경이 사적으로 메주고리를 방문했을지라도, 교황청 교리 신앙성 위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무관심하게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추기경이 메주고리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 우리 신문은 그분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추기경님, 새해 전야 미사에서 "우리는 주님의 어머니께 가까이 있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기경 : 우리가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에에서 체험하는 것과 그들이 복되신 어머니를 얼마나 가까이 느끼고 있는지를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지난 29년 동안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만, 저는 1991년 주교가 된 이후로부터, 줄곧 메주고리에의 열매들을 주목해 왔습니다.

대답자 : 어떤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추기경 : 먼저 첫 번째로, 사제 성소입니다. 꼭 이곳 메주

고리에에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희 교구의 많은 젊은 사제들이 메주고리로 인해 자신들의 성소를 받았습다. 두 번째로, 메주고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 신분이 귀하든 평범한 사람이든, 사회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엔나를 떠나 자그레브를 거쳐 스플릿에 도착했을 때, 공항 안전요원이 어디를 가는 길이라고 묻길래, 저는 메주고리에에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자신도 메주고리에에서 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전, 아주 작은 기차역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제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메주고리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이곳 메주고리에에서 강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열매는 치유입니다. 마약에 중독된 한 젊은이가 제게 말하기를, 자기 친구들이 반강제적으로 그를 이곳 메주고리에에 데려 왔고, 버스가 메주고리에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즉시 치유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치유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열매는 수많은

기도 모임들입니다. 주교가 되기 전인 80년대부터 저는 비엔나에 있는 메주고리에 기도 모임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성당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 성당이 사람들로 꽉 들어차는 것은 우리 도미니코회 회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엔



발현산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손본 추기경

나에 있는 도미니코회 성당들은 그렇게 딱 차는 법이 없는데, 매주 목요일이 되면 그 성당은 언제나 사람으로 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날까지 모여서 충실하게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가 좋다면, 그 나무 또한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답자 : 순례자들에게 메주고리에는 하나의 기적이고, 따라서 그들은 교황청이 메주고리에 성모 발현의 초자연성을 인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교황청의 움직임에 관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알고 계신 바를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메주고리에 인준 요구에 관한 추기경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추기경 : 인준과 관련한 교황청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또 제가 다룰 부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유고슬라비아 주교단과 교황청 교리 신앙성에 의해 발표된 성명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성명서는 늘 합리적이고, 명쾌합니다. 메주고리에에 관한 이 성명서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현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교의신학자이고, 교의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교회는 메주고리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초자연성에 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그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주고리에 발현의 초자연성은 부인되지도 긍정된 것도 아닙니다.

대답자 : 그 말씀은 외교적인 언사로 들리는데, 실제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추기경 : 이는 단순히 교회가 메주고리에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입장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메주고리에 발현이 계속되고 있는 한, 교회가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공표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성모님의 발현이 메주고리에의 중심입니다. 메주고리에 발현은 자신들이 성모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아이들과 성모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발전된 것은 두 번째 단계에서 교회가 조사해야 할 두 번째 현상입니다. 발현 아주 초기부터 수많은 순례자들이 메주고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깊이



목격자 마리아와 손본 추기경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원조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대답자 : 교회는 메주고리에와 관련하여 사목적인 부분에서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까?

추기경 : 어떤 방식으로 이곳 순례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교회가 당면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옛 유고슬라비아 주교들은 1991년에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즉, 공식적인 순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나 혹은 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했을 때처럼, 저는 교구 차원에서 공식적인 메주고리에 순례단을 조직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 주교회의나 교황청은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에에 가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았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성명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교들에게, 또 저에게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사목적인 배려를 받아야 합니다. 대주교로서 저는 제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교로서, 제 교구 내에서 수 백, 수 천명의 신자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치유된다면, 저는 당연히 주교로서 그들을 사목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메주고리에에서 시작된 "평화의 오아시스" 수도 공동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지지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교들에게, 특별히 순례자들이 메주고리에에 찾아가는 교구들에게 연관되어 있으며, 순례자들은 사목적으로 배려를 잘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메주고리에에 관해 다른 주교들과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자기 교구에서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는 사람들을 지지해주라고 장려했습니다.

대담자 : 추기경님께서서는 발현목적증인들을 만나고, 발현산에도 오르셨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추기경 : 역설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성모님께서서는 단순한 언덕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주고리예가 다른 성모님 성지, 발현지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성모님 발현에는 문법이 있다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나름대로의 특별히 스타일을 가지고 발현하십니다.

대담자 : 어떻게 연관된다는 말씀입니까?

추기경 : 세 가지 요소입니다. 거의 언제나 성모님께서서는 아이들에게 발현하십니다. 특별히 머리가 좋거나 거룩한 아이들이 아니라 보통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베르나데트는 글을 쓸 줄 몰랐습니다. 이곳 메주고리에 발현목적증인 아이들처럼 그녀는 열 네 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께서는 아이들을 통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는 주교 입장에서 볼 때, 모욕적인 것입니다. 왜 성모님께서서는 주교관을 찾아오시지 않는 것일까? 그분은 왜 돌로 가득한 언덕이나 강가에서 발현하시는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파티마에서는 떨기 나무에서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아이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서는 러시아 혁명 전에 발현하시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합리주의가 그 절정에 달했을 때, 성모님께서서는 루르드에 발현하셨습니다. 가톨릭, 이슬람 그리고 동방 정교회 신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던 당시,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리라 감히 생각지도 못한 바로 그 때에 성모님께서서는 유고슬라비아에 발현하셨습니다.

목적자 이반과 봉사자들과 손본 추기경



니다. 그분은 평화의 모후라는 이름으로 발현하셨습니다. 발칸 반도에서 일어난 네 개의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이 10년 후에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와 기도를 통한 평화였습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상당한 무게, 힘, 그리고 신빙성이 실려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멕시코의 과달루페로 가보면,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하기 시작했을 때, 성모님께서서는 아메리칸 인디안에게 발현하시어 주교를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자들이 마리아 발현의 공통된 맥락을 연구하고, 그런 맥락에서 메주고리에 현상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자 : 메주고리예에서는 항상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평화가 없습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크로아티아계 가톨릭 신자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발렌틴 인즈코로 하여금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고 있는 국제 사회 공동체에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추기경 : 이곳의 문제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 너무도 많은 나라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전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될 때만, 장기적인 평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도전적인 것입니다. 저는 현재 발렌틴 인즈코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책임지고 있어 기쁘고, 그가 유럽 공동체로부터 더 큰 지지를 얻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메주고리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역시 그 평화를 떠받쳐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온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작은 헤르체고비나를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는 이 사람들이 메주고리예에서 오는 평화, 바로 그 평화를 자신들의 나라에서 증거하는 사도들이 된다는 희망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한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서는 세 종교 모두 존중하십니다. 동방 정교회 신자들은 성모님을 공경하고, 이슬람 신자들은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이 나라에서 소수 민족인 크로아티아계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서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참으로 큰 위안입니다. M

#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3408 : 1989년 6월 28일, 발드라고네(산마리노)  
'마리아 사제 운동' 소속 아메리카 및 유럽 사제들과의  
다락방 모임 형태의 피정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참으로, 큰 애정을 가지고 너희를 보고 있다. 여기서 '예루살렘 다락방 모임'의 실재를 그대로 재현하는 너희의 이 '지속 다락방 모임'이 내 '고통의 성심'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너희는 끊임 없고 열렬한, 그리고 나와 일치한 기도를 바치며 모여 있다. 너희가 함께 바치는 '성무 일도', '묵주기도' 전단 (15 단), '성체조배', 그리고 다락방 모임 전체의 중심을 이루는 장엄한 '공동집전 미사'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 주는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로서, 마주치는 어려움들을 나누어 짊어지며 서로 돕는 형제로서 하나가 되어 있다. 날마다 너희 각자의 언어로 '티없는 내 성심'에의 봉헌을 함께 갱신함으로써, 전세계에 퍼져 있는 내 '운동'의 모든 형제들과도 참된 일치를 이룬다. 이처럼 내 군대에 속해 있는 너희는 내모성적 유산의 소중한 부분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탄은 너의가 내 발꿈치 (창세3,15), 즉 나 자신의 가장 약하고 상처입기 쉬운 부분을 이루는 내 후예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극성을 부려 댈다. 이 시대에는 있는 힘을 다하여 너희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갖은 유혹과 박해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평온을 유지하여라. 나를 신뢰하여라. 지금은 전투의 시기이니 너희는 나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래서 당부하거니와, 예수님께 대한 모든 증언을 온전히 지니고 있을 일이다. 이 정화의 시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더욱 큰 성덕의 길을 걸으려면 마땅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

면 안정과 평화 안에 머물 수 있고, 나에게 대한 신뢰와 자녀다운 의탁 안에 머물 수 있다. 이 배교의 시기에 굳건하고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려면 마땅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더러 '교황'과 더욱 깊이 하나가 되고, 기도와 사랑으로 그를 떠받쳐 주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라야 할 안전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참 신앙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다.

이 대환란기에 너희는 마땅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복음'과 '묵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때 (마태 24,15-25 : 마르13, 14-23: 루가 21, 20-24: 묵시 12-13장 참조)가 닥쳐 왔다.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의 권세와 연합한 악의 세력이 대부분의 인류를 속여넘기려고 하늘과 땅에서 큰 이적(異蹟)을 (마태24, 24: 묵시13, 13 참조) 행하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예수께 대한 너희의 영웅적 증언 안에 굳건히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나타날 자의 강력한 권세에 항거해야 한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개선하실 때, 너희는 기뻐하며 나의 큰 승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의 모두와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너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리고 너희의 사제직부를 축복하며, 너희 마음 안의 착한 지향도 모두 내 손에 모아들인다. **M**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콰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 그리스도인의 영혼이란...

내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으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내 성직자들이 심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쇠약해진 몸으로는 그 몸에 타격을 가하여 조만간에 죽이려고 드는 원수와 맞붙어 싸울 수가 없다. 기름이 떨어진 등불은 꺼지고 만다. 믿음이라는 등불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꺼지고 만다. 그러면 영혼 속에 어둠의 밤이 엄습한다. 가느다란 풀잎 하나, 꽃 한 송이도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내 죽어 버린다. 시든 풀이란 어떤 것이냐? 싱그럽고 향기로운 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렇게 말라 버린 잎사귀들과 가늘고 부서지기 쉬운 줄기만 남을 뿐이다.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이란 어떤 것이겠느냐? 기도를 하지 않는 사제의 영혼은? 이는 더없이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영혼일 따름이니, 어둠 속에 잠겨 길을 잃고 정신적 사욕이나 육욕에, 혹은 흔히 그 둘 모두에 가차 없이 휩쓸려 가고 만다. 내적 생활의 결여로 신앙 위기를

겪는 사제의 영혼은 어떠하겠느냐? 사탄의 비웃음과 놀림감이 아니겠느냐? 사탄은 그 영혼에 증오와 질투를 퍼부으면서 온갖 역겨운 것을 터덕터덕 칠하여 노예로 삼는다. 사탄이 독한 거품을 부글거리며 필사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다. 그 영혼이 내가 마음대로 쓰라고 준 효과적인 방어 수단을 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영혼의 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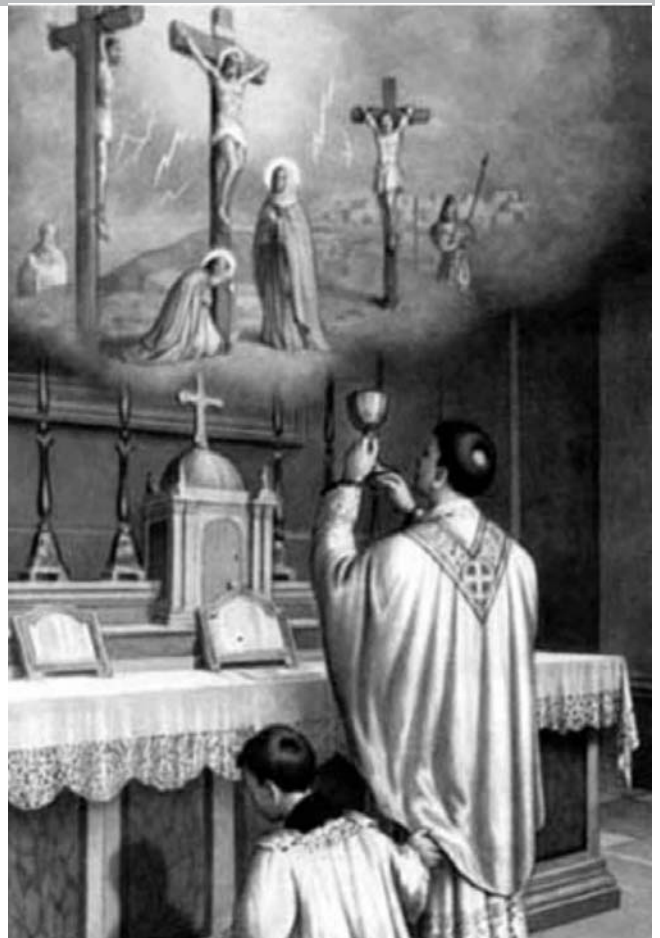
첫째 방어 수단은 기도이다.

- 기도는 영혼을 하느님께까지 올라가게 한다.
-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 기도는 영혼의 산소이다.
- 기도는 영혼을 친밀하고 심오하게 하느님과 결합시킨다.

영혼이 나와 결합해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영혼이 내게 굳건히 붙어 있다면, 누가 그 영혼을 내 성심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느냐?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상한 과일과 같다.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결국 땅에 떨어지고, 거름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느님의 아들인 나는 꼭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도 밤낮으로 기도하였다. 가르치는 것보다 모범을 보여 주기를 앞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및 사제들에게는 나의 모범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람이 먹기를 거부하면 육체적인 기력이 감소하기 마련이니, 그것을 하느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다. 기도하기를 거부하여 영적인 활기가 소진되고 마는 것도 하느님 탓일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속의 요란한 파도 속에서 난파한 배에 탄 사람과 같다. 헤엄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느냐? 나의 기도 권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매우 많은 사제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열에 들뜬 듯한 그들의 활동에는 하느님의 축복이 따르지 않고 따라서 아무 결실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결실은 고사하고 흔히 정반대의 결과를 내곤 하는데 말이다. 그들은 이제 준성사도 믿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 언제나 그렇듯이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준성사를 활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 악마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살아 있는 영적 실재의 바깥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 불을 붙여야 한다!

아들아, 그들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 뿐이다. 신문 잡지를 신뢰하면서 그 썸에서 솟는 물을 게걸스럽게 들이킨다. 교회 생활을 조용히 되돌아보면, 단지 한 번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이 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성인이 된 사람은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다. 순교자들 (계다가 순교자는 수없이 많다.) 역시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대한 충실과 신앙에 대한 충실을 피로써 증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사제들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얼마나 심한 맹목이냐! 얼마나 캄캄한 밤이냐! 그들은 '빛'과 '생명'을 거부했고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 이 빛과 생명을 영혼들에게 가져다주게 하려고 내가 뽑은 사람들이건만!

아들아, 나는 '사랑'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거부한다. 나는 '생명'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꺼버린다. 나는 '불'이다. 그러니 단지 타오르기를 바라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을이건 도시건 사람들이 붙인 숭한 불빛이 빛나기를 바란다. 이러한 내 '뜻'을 거역하는 목자들은 불행하다! 예컨대, 네게 이미 말한 것과 같이 나는 '예수 성체의 벼들'을 원한다. 내가 너를 뽑은 것은 큰 일을 시키기 위함이니, 그것은 내 말을 사도들의 후계자들과 사제들 및 신자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이는 자기 자신의 영혼과 다른 이들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고, 내 어머니도 믿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다. 다수는 그들의 맹목을 고집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아야 한다!

네게 강복한다, 아들아.

(1975년 11월 20일) M

〈가톨릭 출판사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에서 발췌〉

# 어린 자녀들아, 희망과 사랑의 손이 되어 다오!

신경남 스테파노  
카푸친 작은 형제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 - 2009년 11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너희 가정 기도를 새롭게 하라고 나는 너희 모두를 부른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기쁨 속에서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순수하고 기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 그분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모든 마음 안으로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나의 손이 되어다오. 길을 잃고, 더 이상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해 사랑의 손이 되어 다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은총의 시기에 너희 가정 기도를 새롭게 하라고 나는 너희 모두를 부른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기쁨 속에서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지나간 메시지들을 통해 성모님께서서는 '매일,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 모임은 힘이 있으니 기도 모임을 만들어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자체가 하나의 작은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의 문자적 의미는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고, 가족들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육신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음식, 곧 사랑과 따뜻함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식구라면 우리는 영적인 음식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함께 영적 음식을 나눌 수 있을까요?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식구들이 주일미사에 함께 참례하고, 매일 함께 모여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에 비추어 자신들의 삶과 신앙을 함께 나누다면, 그 가정은 성가정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참된 평화를 맛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총의 시기인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성가정에 탄생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가정에도 태어나시도록,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의 가정 기도를 새롭게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





## 우리는 예수님 사랑과 그 사랑에서 우리나라오는 기쁨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게 만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그분에 대한 사랑을 더 한층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어떠한지 들여다보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 어느 것에 대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라고 사랑 고백의 기도를 바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갖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주기도와 성체조배를 하며 성모님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의 부분을 개혁하고, 성경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순수하고 기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 그분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 모든 마음 안으로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한 복음 1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 참으로 순수하게 되려면, 주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

다. 그러나 죄나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전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회하는 마음, 용서 청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오직 하느님만을 갈망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 참된 순수함이 깃듭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1 테살 5,16)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의 행동과 얼굴에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과 그 사랑에서 우리

나오는 기쁨의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순수하고 기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 그분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는 모든 마음 안으로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 자녀들아, 나의 손이 되어 다오. 길을 잃고, 더 이상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손이 되어 다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성모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에 우리의 동참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이번 달 메시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내 손이 되어 다오. 길을 잃고, 더 이상 신앙과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이들을 위한 사랑의 손이 되어 다오." 이사야서 6장에서 하느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예언자 이사야처럼, 우리도 "성모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의 손이 되어 드리하고자 하오니 저를 쓰십시오." 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인류 구원 사업에 동참하도록 초대받고, 그에 응답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로 응답합니다. **M**



## 평화와 축복을 사랑으로 나누어라

- 2009년 12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기쁜 날, 나는 평화의 왕이신 내 아드님께서 너희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시도록 너희 모두를 그분 앞으로 데리고 간다. 어린 자녀들아, 그 평화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어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기쁜 날, 나는 평화의 왕이신 내 아드님께서 너희에게 평화와 축복을 주시도록 너희 모두를 그분 앞으로 데리고 간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오늘은 오래 된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원죄를 짓게 했던 뱀으로 표상된 사탄에게 하느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최초의 인류가 원죄를 짓고, 그 결과로 죽음과 고통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서는 여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 구세주를 약속

하셨고, 그 약속은 바로 동정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와 탄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그를 무찌르고, 인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모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낳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분 앞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십니다. 인간이 되어 오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모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엄마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면 어린 아기가 되어야 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참된 어머니이시며 우리 영신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당신 자녀들인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화와 축복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성모님에게서 태어나 그분 품에 안겨 계신 작은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도 작은 아기들이 되어 성모님 품에 안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앞에 봉헌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받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 평화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어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매번 사용하시지만 '어린 자녀들'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하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표현은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작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작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아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모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평화의 예수님 앞에 데려가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 아기,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당신이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2-3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내리시는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종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모님은 예수님께서로부터 받는 그분의 평화와 축복을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온 평화와 축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만이 나눔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 평화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어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사거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신의 평화와 축복을 주십시오.



## 어린 아기는 엄마의 손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것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당신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어머니 마리아께 저희 자신을 온전히 맡기오니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하고 빠르게 당신께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오늘 저는 당신의 품에 안기고, 손에 이끌리어 예수님께 인도되어 그분의 평화와 축복을 받기 위해 어린 아기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 손에 맡겨 드리오니, 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어머니, 저의 모든 것은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M**

▶ 선교회로 (qpmm.org@gmail.com)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매달 성모님의 메시지와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금주**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계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원주**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저는 최근에 비츠카가 어떤 순례자와 나눈 사순절에 대한 엄청난 영감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순절을 커피, 술, 초코릿, 담배, 텔레비전, 혹은 지나치게 애착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 희생과 절재를 실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해야 되며, 절대로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는 40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술을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곤 합니다. 이것은 사순절을 잘못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만, 사순절 동안만이 아니고 일상 생활에서도 실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바램과 십자가, 아픔과 고통들을 하느님께 봉헌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직 그분과 함께 갈보리를 향하여 걷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자 마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제가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됩니까? 무엇을 당신께 드릴까요?" 라고 여쭙어야 할 것입니다.

## 비츠카가 전하는 사순절 기도

저의 뜻은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과 함께 지고 갈 때,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분이 필요할 때만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를 절실히 필요로 하실 때 즉,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실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십자가를 봉헌할 수 있을 때가 종종 생기지만, 그때 우리는 봉헌하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는 너무 무거우니 저의 어깨에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질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이에게 이것을 주지 않고 저에게 지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면 안되지요.

우리의 모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우리의 모든 바람과 십자가, 아픔과 고통들을 하느님께 봉헌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위대한 힘과 우리의 십자가들을 주님께 봉헌했을 때의 위대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이 사순절 시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크나큰 사랑으로 그분 옆에서 함께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걸읍시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 할 때, 부활을 구경꾼처럼 멀리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적과 외적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부활을 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각각의 십자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목적이나 뜻없이 절대로 십자가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언제 또 우리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지도 아십니다. 고통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신께서 주실 다른 선물도 있으시면, 저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감하게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 저는 당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께서 저에게 고통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오, 고통의 위대한 가치를 네가 안다면!' 이것은 정말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오직 예수님께 "예" 라고 응답하는 것만이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배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루를 하느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는 우리에게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맨 뒷자리에 놓으라고 하십니다. 즉 하느님을 맨 뒷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하는 여러 일들, 예를 들면 병자를 방문하는 일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행 없이 기도를 하면 이것 역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선행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여기서 비츠카의 말이 끝남.)

비츠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메주고리예를 방문하는 순례객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살폈는지 알기 때문에, 그녀가 전하는 고통은 더욱 깊은 뜻을 지닙니다. 비츠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매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기쁨을 압니다. 그녀는 이 사순절에 얼마나 귀한 조언을 우리에게 주었는지요! 그녀의 말들은 파우스티나 성녀의 말들을 반영시킵니다. "오 고통 받는 영혼이, 하느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깨닫는다면 그는 기쁨과 행복에 겨워 죽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은총이 되는 고통의 가치를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때 가서는 더 이상 고통 받을 수가 없게 될 지도 모릅니다.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니까요! (963)

"사랑하올 어머니,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사랑에 찬 '예'를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M**

〈www.childrenofmedjugorje 에서 발췌 번역〉





# 우리도 묵주 기도를 한다면...

저자: 사브리나 꼬비치  
옮긴이: 남기옥 마르타

질문 : 신부님께서 성령기도를 봉헌하신 후 강론을 하시고, 모든 순례자들에게 성모님 상본과 묵주를 나누어 주시며 안수기도를 해 주십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조 신부 :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서 당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라는 말씀에 따라, 환자들을 위한 치유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달림을 받고 있기에 미사 전이나 강연회 전에 항상 "사탄을 끊어 버립니까?" 라는 세례 갱신식을 했습니다. 순례자들 중에는 지역 공산당 단체들이 저의 모든 일정을 저지하려고 보낸 이들과 가짜 순례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모님 상본은 무엇인가를 얻어가고 싶어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강연중에는 사진을 찍는 순례자들 때문에 분심이 들어 "제발 부탁합니다.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부부가 티할리나 성당내에 모셔져 있는 성모상 사진을 찍어서 제게 선물했습니다. 늘 성모님 메시지 전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중에, 그 사진 뒤에 발현 초기 성모님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통해 성모님의 메시지를 순례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신부님께서 검거된 뒤 즈링꼬 추발로 보좌신부님은 혼자셨는데, 누가 도와드렸는지요?

요조 신부 : 토미슬라브 블라쉬치 신부님께서 즈링꼬 신부님을 돕기 위해 부임해 오셨습니다. 토미슬라브 신부님께

서 차플리나에 계실 때 메주고리에 본당을 좀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분께 본당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메주고리에에 그리 오래 있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 토미슬라브 신부님은 무서워하지 않으셨는지요?

요조 신부 : 아니요. 전심전력으로 기쁘게 일하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깊이 있는 영성생활로 특색 지워집니다. 놀라운 힘으로 메주고리에에 큰 자취를 남기신 분이시고 그분의 노력을 통해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마음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미슬라브 신부님께서서는 정보차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신부님께서서는 발현목격증인들을 통해 동정 마리아께서 이끌어 가시던 기도회를 관리하셨습니다. 내적 담화를 하고 있던 어린 옐레나와 마리아나를 그 누구보다도 보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조배를 지속하셨고,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 등... 특별히 그분이 지니신 따뜻하고 감동적인 생각들을 들려주면서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곤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메주고리에 마을 주민들을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메주고리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고 활기를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에서 오래 계시지 못할 것을 느끼셨나요?

요조 신부 : 네, 아주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고 토미슬라

브 신부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자발적인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지만 메주고리예로 발령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토미슬라브 신부님께서는 기꺼이 수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순례자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메주고리예는 토미슬라브 신부님께 고마워해야 합니다. 또 선종하신 슬라브코 신부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였고, 이 두 분 중 누가 더 많은 일을 하셨는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질문 :** 1985년 당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티할리나 성당 공사와 음향 시설 등을 보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조 신부 :** 성당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도 가장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했지만, 모든 시설이 다 낡아서 임시로 사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할 수 없이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니 성당 주변이 늘 어수선하고 소음이 있어서 순례자들을 맞이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기증해 준 자재들로 주차장을 넓히고 화장실 공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에 있는 작은 우물이 말라서 수도 시설이 시급했습니다. 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실 물을 매일 사다 날라서 식수 탱크에 채우는 것이 상상 되십니까! 그런 와중에도 축성된 성모님 상분을 순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 상분을 보고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모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체험하고,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성모님께서 제가 순례자들과 함께 하는 목주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목주를 손에 들었던 성녀 베르나르데트와 파티마의 루시아 수녀, 메주고리예의 비츠카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들도 손에 목주를 들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손에 목주를 전해줄 수 있을까?... 메주고리예를 찾아온 순례자들이라면 값비싼 목주보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하리라 믿었습니다. "이 목주는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메주고리예에서 선물 받은 것입니다. 제 손에 들고 축성 받았습시다." 자신들의 손에서 축성된 목주를 받은 이들은 고통 중에 있다 해도 목주기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손길을 체험할 것을 믿

었습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들의 기도도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저는 경찰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순례자들에게 나누어 줄 목주를 구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순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즉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강론, 십자가 경배와 기도,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흠송하는 예식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축복기도를 할 때는, 치유 받은 사람들이 "치유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유에 대해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원했고, 자신들이 본 것을 전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치유가 기적 박물관이나 기적적인 치유사건의 전시관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성지들은 이런 종류의 장소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생활을 통한 증거, 기적 치유를 받은 사람들에 의한 생활의 증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유래하는 교회내에서의 자연적인 것이고, 그분의 뜻이기도 합니다.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마태오 10장 8절의 치유는 하느님의 활동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찬미와 감사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술가치가 있는 내 개인적인 물건을 평생 기억하기 위해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기적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리고의 자캐오의 치유는 바르티메오의 치유보다 훨씬 더 위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님인 바르티메오는 이제 더 이상 장님이 아닙니다. 자캐오는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며 가난한 이들과 나눌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색한 자캐오가 가난한 이들을 만나러 가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횡령했다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라며 루가 19장 8절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시각,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분과 함께 하는 여정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치유는 기록이 가능하고, 숫자로 만들고 문서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이런 기적 치유들을 문서화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치유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문서 기록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이런 문서 기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M**



##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며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 안에서 인간이 되신 말씀, 곧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할수록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려는 의지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음들이 모아지면 많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느님을 찾기 위해 먼 나라로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분은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자기의 등불을 밝혀 놓는다면, 끊임없이 하느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한결같이 등불을 밝혀 두면,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하옵 주님의 온유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신뢰에 찬 개인적인 우정을 변함없이 베푸시며,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 우정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당신과 맺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에 옮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분을 닮으려 애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귀찮아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며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이 마르다."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체적으로 목마르셨 다기보다 오히려 사랑에 목마르셨다고 하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피조물들의 사랑을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목말라 하십니다. "목이 마르다."는 이 신음소리가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지 않나요? 돈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배고픈 그리스도를 배부르게 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지 빵에 굶주리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에 굶주리고 계십니다. 머무를 곳이 없는 그리스도께 따스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정을 평화와 행복, 그리고 자비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우리가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사랑하기를 배우게 되면, 우리 눈은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기쁨, 평화에 찬 마음을 지니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욱 더 닮아가면서 이 사랑과 기쁨, 평화를 내뿜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웃거나, 빵 한 조각을 주거나, 온정을 베풀거나, 도와주거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허영심에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느님의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이 그분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그분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 정도뿐임을 잘 알아 둡시다. 그러나 이 한 방울의 물이 없다면, 바다의 물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려면, 우선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분이셨듯이 이리저리한 순간에 내가 함께 하는 사람도 나에게서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임을 나는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빈민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마치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살고 죽으시며, 하느님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참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에게 기도란 24 시간 내내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여 살며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고마운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이들과,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머무를 곳이 없을 때에 쉼 곳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가 온 세상의 이웃, 곧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데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손을 통하여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지닌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소서." **M**

(성 바오로 서원/샘에서 생기를'에서 발췌)



### 아이들의 기도

하느님,  
남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도한 건  
예쁜 강아지였는데요...  
- 조이스

하느님, 왜 주일학교는  
일요일에 하나요?  
저는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 탐

남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라는 말씀  
당신이 하신거 맞나요?  
맞는다면 우리 오빠를  
제가 고쳐 봐야겠어요,  
- 달라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 (light)를 만들었다고  
읽었는데, 주일학교에서  
당신이 빛(light)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치게 틀림없어요,  
- 다나

당신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아요,  
우리 가족은 4명인데도  
저는 결코 그럴수가  
없었거든요,  
- 낸



## 기도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발현 목격자 비츠카(3)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질문 : 세상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비츠카 :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알게 되는 것은 절박한 일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친구와 친척들, 아니 그 이상으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성모님께서서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를 알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메시지를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구속을 받은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전하여 성모님을 도와 드리라고 요청하십시오.

질문 : 당신이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까?

비츠카 : 네, 이 일은 성모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택하셨습니다.

질문 : 힘들지 않습니까?

비츠카 : 그것은 제겐 큰 선물입니다. 저는 성모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모님께서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걱정하십니다.

질문 : 성모님 메시지 중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비츠카 : 요 며칠 동안 성모님께서서는 세상의 젊은이들이 큰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기도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그 젊은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이들은 우리들뿐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커다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대한 시기다.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해 이 메시지들을 살기 시작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질문 : 비츠카, 만일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벌어질까요?

비츠카 : 우리는 먼저 우리 마음 속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야 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의 평화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 : 만일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비츠카 : 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질문 :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하느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가정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하느님께 돌아오겠습니까?

비츠카 : 네, 우리는 말로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기도와 희생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렇다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말입니까?

비츠카 : 네, 맞습니다. 특히 묵주기도가 그렇습니다.

질문 : 당신은 계속해서 묵주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츠카 : 그들은 자기 고유의 방법으로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입니다. 지상에서 차이를 만든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어찌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초대 받았습니 다. 묵주기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비단 가톨릭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비츠카 : 우리는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어떤 것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성모송 10번을 암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당신은 또다시 10번 암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도 언젠가는 묵주기도 전체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아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날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도하라고



##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 일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비츠카 :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으로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욕망과 문제들을 보여드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멀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진정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랑이 함께 찾아올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질문 : 당신은 기도 중에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츠카 :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큰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을 생각하면 무척 슬프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매 순간, 매일을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비츠카 : 물론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큰 확신을

## 하느님 계획의 실현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연으십시오! 그분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십시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단지 하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 일조차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질문 : 기도 모임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비츠카 : 성모님께서서는 어떤 기도 모임을 보시더라도 행복해 하십니다. 단체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기도 모임들이 성모님을 통해 이곳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상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계획의 실현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곳에서 하느님의 계획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내리실 것입니다.

질문 :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츠카 : 맞습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와 수요일과 금요일에 빵과 물로만 하는 단식을 통해 우리는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어떤 전쟁 말씀입니까?

비츠카 : 작은 전쟁부터 큰 전쟁까지 모든 종류의 전쟁입니다.

질문 : 비츠카, 성모님의 메시지 중 이혼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비츠카 : 네, 성모님께서서는 이혼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것이 매우 슬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의 숫자는 사탄의 힘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M**

〈이 기사는 메주고리에 발현목격증인들의 체험담으로서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믿지않는 이들을 위해 미리아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드님을 알려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 떠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의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여기에 있고, 너희 옆에 있다.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다.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는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 하느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여라. 고맙다."

2010년 1월 2일



## 어머니, 저는 메우고리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89년 9월 21일 티할리나 성당에서 메우고리에 본당의 전임 요조 신부님이 미국 사람들과 이탈리아 그룹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강론 중에 토리노에 살고 있는 여자 의사인 이탈리아 부인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녀가 회개한 이야기를 안카가 미국 사람들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나는 프랑카라고 합니다. 나는 의사이고 남편은 약사입니다. 85년에 우리들은 여기 유고슬라비아 남부에 휴가를 왔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중심 도로를 지나면서 메우고리에라는 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따라가던 우리는 성당을 보았습니다. 나와 남편은 서로 다른 문을 통해서 우연히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회개의 은총을 받고 고백성사를 보았습니다. 나에게서 아들이 둘 있습니다. 한 아이는 마약중독자입니다. 나는 3년 동안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그가 도둑질을 하였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마약을 얻기 위하여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기 위해서 매일 신문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메우고리에에 있었지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커다란 평화를 깊이 음미하였습니다. 토리노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돌보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85년 11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12월 8일에 나는 혼자서 토리노에서 메우고리로 다시 왔습니다. 내가 발현목격증인 마리아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나에게 종이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이 쪽지 위에 당신의 아들 이름을 적어 보세요." 그 후 나는 집으로 돌

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때 어떠한지를 상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모든 것, 옷, 오락 등을 포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미사를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해가 지난 86년 12월 14일, 내 아들을 못 본 지 4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내가 그룹과 함께 기도하러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4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일년 전 12월 8일부터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즉각적으로, 12월 8일은 내가 목격증인 마리아를 통하여 성모님께 아들 에디의 이름을 적었던 날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아들은 자기가 마약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방광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십자가를 에디의 회개를 위하여 봉헌했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그 고통과 우리들의 삶을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봉헌하고, 늘 기쁨 마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고통을 항구하게 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에 또 하나의 아들이 우리들의 새로운 삶을 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한해가 흘렀습니다. 정확하게 일주일 전입니다. 메우고리에에서 에디는 예수님을, 주님을, 기쁨을 발견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메우고리에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증언의 전부입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M**

(안카의 증언에서 발췌)



## 회개와 은총의 장소

2008년 10월 초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좌주교 오라시오 가르씨아 주교가 아르헨티나 순례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방문했다. 1956년 생인 가르씨아 주교는 5년 전에 주교로 서품되었다. 수년 동안 정기적으로 순례자들을 메주고리예로 데려오고 있는 아르헨티나계 크로아티아인인 마리아 스테그나가 이번 순례에 동행했다.

질문 : 주교님 어떻게 메주고리예에 오시게 되셨나요?

가르씨아 주교 : 어떤 신자 모임에서 저를 초대했는데제가 그 초대에 응하는 데는 단지 2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이 은총과 기도,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시간의 장소라는 것을 보기 위해 왔으며,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성시간을 하기 위해 성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는 것이야말로 성모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기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와 다른 성모성지들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가르씨아 주교 : 어느 곳이든 기도가 있고, 거룩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발현산과 십자가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시간이 있습니다. 성시간은 우리 시대의 징표입니다. 성시간이야말로 이곳에서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성시간을 위해 사람들은 늦은 저녁 시

간에도 오고 밤에도 옵니다. 메주고리예는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질문 : 성모님 현존에 대한 표징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르씨아 주교 : 열매가 바로 표징입니다. 마리아님에 대한 사랑, 발현의 순간을 기다리는 동안의 희망, 기쁨 등이 그분의 현존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습니다. 메주고리예 메시지는 평화에 이르게 하고, 이는 모든 이들을 위한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신앙과 사랑을 통한 믿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 다른 이들과 나누는 기쁨,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질문 : 메주고리예에서 고해성사를 주고 계십니까?

가르씨아주교 : 네, 3일 전에 성사를 본 사람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성사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고해성사를 주었습니다.

질문 : 오늘날 보편교회와 관련하여 메주고리예가 지니는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가르씨아 주교 : 이곳은 전 교회를 위한 은총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와 성시간의 은총을 가져다 줍니다. 메주고리예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일상 생활에서 보여질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내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성시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내적

생명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습니다. 성시간에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저는 메주고리에 메시지의 보편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신앙의 세계화" 그리고 보편적 형제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고,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 성모님 발현에 참석하셨습니까?

**가르씨아주교 :** 오늘 아침 미리야나와 함께 성모님 발현에 참여하기 위해 갔는데 4시경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매일 특별한 지향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발현 현장에 있었는데, 발현 중에 성모님께서 마치 저에게 "나는 너희 모두를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발현이 끝난 후, 미리야나가 성모님께서 특별히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를 초대 하신다고 말할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질문 :** 발현목적 증인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가르씨아 주교:** 저는 비츠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강복해 주기를 청했고, 저는 그것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그녀의 평범함, 쾌활함 그리고 단순한 기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질문 :** 발현목적 증인들은 모두 결혼했습니다.

**가르씨아 주교 :** 네, 하느님의 현존은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 체험될 수 있습니다.

**질문 :** 재미있는 것은 사제들과 주교들에게는 메주고리에 순례단을 조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르씨아 주교 :**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인내롭게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면, 계속될 것이고, 하느님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적 쇠신을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질문 :** 만일 이러한 일들이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것처럼 많은 은총을 주시겠습니까?

**가르씨아 주교 :** 교황님(역자주: 요한 바오로 2세를 지칭함) 자신도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주고리예에 대한 인준입니다. **M**

[www.medjugorje.hr](http://www.medjugorje.hr)에서 발췌 및 번역



##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 "나는 훌륭한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란다."

쥬앙-카를로스 LISA 신부는 2008년 한해를 메주고리에 머물렀다.  
아르헨티나로 돌아가기 전, 그는 라디오 방송 MIR를 통해  
메주고리에에서의 체험을 증언으로 남겼다.

“저는 무녀독남 외아들로서 1970년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1962년에 결혼하셨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인 197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 이전이나 이후에 아기를 가지신 적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느님께서 사제를 원하셨기에 어머니의 태를 열어 주시어 제가 태어난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겠노라 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진정 하느님의 뜻을 확신하는지 제게 물으셨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할머니가 되고 싶은 바람을 하느님께 봉헌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파티마 성모님 발현 목격자들을 시성하실 때, 파티마에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성지, 과달루페에도 가 보았습니다. 두 성지 모두 기도를 위한 장소지만, 저는 우리의 어머니인 성모님의 손길이 이곳 메주고리에 마을을 직접 매일 어루만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기도가 더욱 생생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티마와 과달루페가 과거형이라면, 메주고리에는 오늘도 발현하고 계시는 진행형이니까요. 이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이곳에 머문 열 달 열흘은 제겐 아름답고 풍요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수사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이 첫 번째 아름다웠던 경험입니다. 프란치스코 소속도 아니고, 크로아티안 아이남에도 불구하고 수사님들은 진심으로 저를 한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매일 2-3시간 동안 순례자들의 고백성사를 듣는 것도 사제로서 매우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마음을 열고

서로 다른 문화 -스페인, 이태리, 크로아티아인들- 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출신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고백성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길, 그리고 우리의 삶을 깊이 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사제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안식년을 지내면서 제 자신의 마음과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원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서 보낸 올해의 안식년은 제게 완벽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메주고리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교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교님께서도 8월에 메주고리에 오셨었습니다. 주교님께서 관할하시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관구는 신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백성사를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본당 뒤에 있는 부활하시는 예수님상 앞에서 일어났던 작은 일화가 떠오릅니다. 주교님은 예수님상 무릎에서 흘러 나오는 물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셨지요. 어느 날 크로아티아인 몇 가족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상 앞에서 기도하던 중에, 한 아빠가 자신의 아이를 안아서 예수님상 십자가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올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교님은 예수님상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지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서 메주고리예의 정신, 즉 온 가족이 하느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드리는 기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가진 가장 인상적인 체험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받을 때면, 저는 이곳에 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인 지난 3월, 십자가 산에서 홀로 가졌던 기도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순례자들이 거의 없었던 때였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의 현존하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매주 최소한 한 번 이상 십자가산과 발현 언덕을 오르는 이유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 십자가 산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메주고리예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1년 처음 메주고리예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한 명과 함께, 그 다음에는 순례자 일행과 함께 왔지요. 그 이후부터 저는 매년 이곳을 찾아 옵니다. 2001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제 삶에 매우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저의 믿음을 비추어주는 내적인 빛을 체험한 시기였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메주고리예에서 함께했던 노래와 함께하는 성체조배와 미사전 묵주기도를 우리 교구에 소개했습니다.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새로운 부임지인 성요셉 교구에서 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은 바로 매주 금요일 24시간 경배를 드리고, 매일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는 그곳에서는 메주고리예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도전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어떤 정해진 공식이나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비밀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친밀감을 이루어주는 기도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인 기도가 중요한 비밀의 열쇠임을 아는 사제라면, 시대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은 적든, 사제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 성사, 회개, 그리고 하느님을 삶의 제일 첫 자리에 모시는 것, 이것이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핵심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다시 안식년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순례자들과 함께 다시 메주고리예를 찾아올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로 돌아가면, 저는 메주고리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먼저 성모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 제가 이곳에서 체험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평화의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줄 것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양떼에게 돌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M**

www.medjugorje.hr 에서 발췌 및 번역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 / 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중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선교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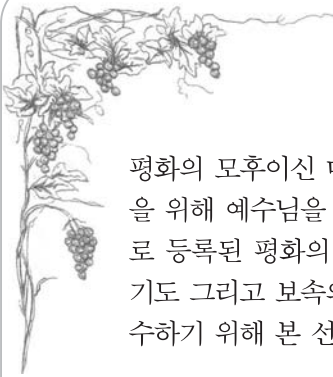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이 토마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이규현, 송시원, 한테레사, 남미자

인쇄: 동방인쇄, 영인문화 인쇄



#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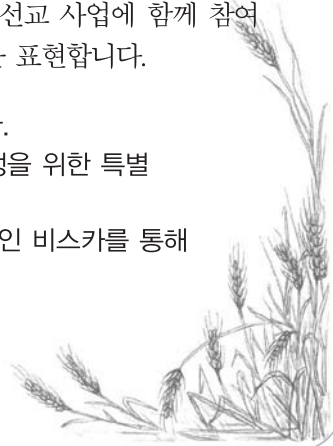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와 매달 메시지 목상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 신청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가족과 친지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성모님의 메시지와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상구, 강선주, 강재복, 강찬구, 고민자, 고선희, 고아네스, 곽복화, 구순의, 권글라라, 권금옥, 권숙자, 권혜자, 권희성, 김건일, 김글라라, 김금성, 김금순, 김다윗, 김테레사, 김복레, 김비비안나, 김마데라, 김마리아, 김만춘, 김말숙, 김명숙, 김계순, 김상원, 김성인, 김세실리아, 김수연, 김숙영, 김아네스, 김영서, 김영숙, 김영주, 김영희, 김옥희, 김용신, 김원경, 김유경, 김재국, 김정순, 김정연, 김정자, 김주동, 김주희, 김진이, 김태규, 김태희, 김형태, 김한숙, 김학청, 김학훈, 김현정, 김효숙, 김효정, 노마리아, 노종만, 노희영, 도안나, 류유스티나, 류정선, 맹성호, 문방자, 민정숙, 민진아, 민헬레나, 박경자, 박금자, 박길재, 박릿따, 박명숙, 박명완, 박문수, 박배호, 박병철, 박봉철, 박상수, 박선미, 박선희, 박수현, 박실비아, 박아네스, 박연희, 박영실, 박정자, 박혜선, 박창희, 박캐롤라인, 박프란체스카, 백명숙, 백안셀모, 서담, 서아네스, 서정열, 서진희, 선우윤호, 성문선, 성열삼, 성은교, 성정숙, 손마리아, 손환, 송상협, 송원식, 신순덕, 신완식, 신의근, 신진희, 신현철, 심세실리아, 안다미, 안순호, 안애숙, 안에스터, 안은순, 엄봉화, 엄토마스, 어숙이, 여수연, 예길자, 오글로리아, 오서왕, 오수산나, 오혜수, 우귀숙, 원명희, 유광문, 유병필, 유보영, 유제영, 유희열, 윤경이, 윤양수, 윤정숙, 윤혜숙, 임주자, 임효경, 임희자, 이경성, 이계숙, 이글라라, 이동우, 이문자, 이마리아, 이복희, 이브리짓다, 이비비안나, 이상수, 이석영, 이선화, 이성운, 이수범, 이수은, 이순세, 이순자, 이영미, 이영분, 이유미, 이운영, 이은경, 이은숙, 이은희, 이인석, 이인선, 이인영, 이젠타, 이재순, 이정옥, 이정원, 이준용, 이철호, 이진민, 이한식, 이현우, 이폴리나, 장민현, 장봉석, 장아가다, 장요셉, 잔슨윤숙, 전문석, 전문자, 전영자, 전현숙, 정광선, 정대레사, 정세실리아, 정명좌, 정홍철, 조동진, 조남원, 조성희, 조용옥, 조안나, 조은자, 조창길, 조철희, 지니김, 지명숙, 지현남, 진인숙, 최경숙, 최경희, 최금순, 최기호, 최동숙, 최상환, 최세실리아, 최선영, 최정신, 최재진, 최종권, 최종금, 최혜진, 채영, 표상순, 한스텔라, 한영옥, 허선이, 허정희, 허춘애, 허희선, 홍복희, 홍옥선, 홍옥표, 홍혜수, 황계자, 황금자, 황안젤라, 황정숙, 황중숙, 현젤뚜르다, Seattle 평화의 모후 기도회, 메릴랜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 뉴올리언즈 한인 성당 박준혁 프란치스코신부, 익명

Nansoon Buffington, Kang Jae, Eileen Cho, Patrick Zinkhen, David Burger, Lee Hee, A Chun, BAI, Jane An, Lisa Rigoni, Sun Lamb, Henry Ji, K Larcenaire, Jung, Yung, Han Kyung, Sunny Bertao, Chang Dardt, Kun Tunnell, Monica Guthard, Ye Clemmons, Oksun Karosas, Glover Catharina, Myong Spence, Kim Columba, Nam Suh, Elliott Kye, Joe Winnski, Ul Leach, Yoon, Mee Kang, Consolcia Taphorn, James Horner, Hyuk Park, J.&R Horner, Ryou Jung Sun, Lee Maria, Ziegmann Cyuthia, Han Sung Lim, Lee's sons auto,

**평화의 모후 선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달력 발행을 위하여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분들은 주소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의 지속적인 발행을 위하여 회원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식지가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선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일반 후원금	\$10,136.32
지난호 부족금(익명)	\$4,165.68
<b>총 후원금 :</b>	<b>\$14,302.00</b>
지출	
지난호 이월금	- \$4,165.68
53호 평화의 모후 소식지	
반송봉투, 통신비, 교통비,	
발송비, 사무실 운영비	\$16,580.00
<b>총지출액</b>	<b>\$20,745.68</b>
부족금	\$6,443.68

### 설터

우리가 하는 일의 열매는 능력, 에너지, 돈,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유용한 선물이지만,  
무엇보다 오로지 하느님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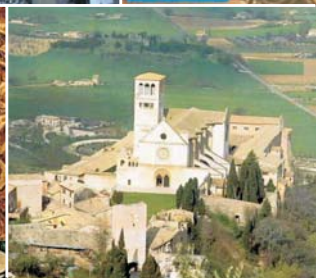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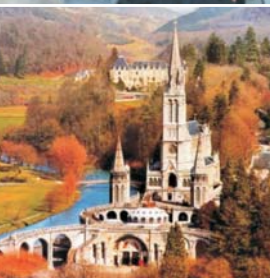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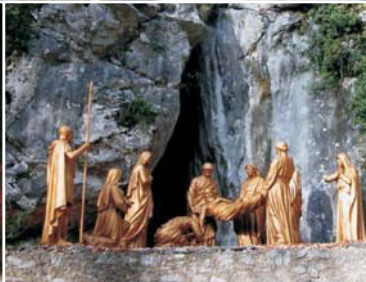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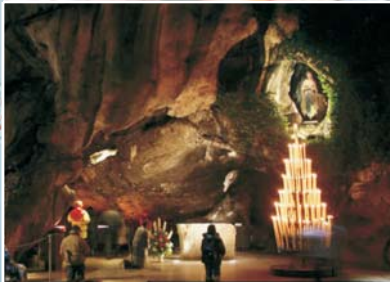
- 성 막시밀리아노 콜배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 파리, 루르드, 로마, 아씨시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주관 2010년 성지순례 안내

**2010년 3월 19일 - 28일 (9박 10일)**

메주고리에 - 드브로브닉 순례 (8박9일)

**2010년 5월 15일 - 27일 (12박 13일)**

메주고리에-드브로브닉-파리-기적의 메달성당-외방선교회-루르드

**2010년 7월 26일 - 8월 8일 (13박 14일)**

메주고리에 국제 청년 대회 - 드브로브닉 - 로마 - 바티칸 - 성바오로 치명터 - 카타콤바 - 성모 마리아 대성당 - 아씨시 - 란치아노 (성체 성혈의 기적의 성당)

문의처 :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mailto:qpmm.org@gmail.com) / 홈페이지 [www.qpmm.org](http://www.qpmm.org)

PRST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